

하루를 시작하며



신 배

수필작가

햇볕이 허락도 없이 거실 서편에 들었다. 동백꽃은 붉은데 꽃 떨어진 벚나무와 목련에는 이파리가 무성하다. 창문을 여니 햇볕을 따라 들어온 바람이 곁가를 간질인다. 나와 보라고.

해가 한 뺨이 못 미친 중천까지 올라왔다. 포구 앞 편의점 오른쪽 경사길을 넘으면 시간에 퇴색된 노인정이 있고 안에는 세월에 탈색된 노인들이 앉아있다. 먼저 간 사람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었다가 살아 눈물 나는 얘기로 목소리가 젖기도 했으나 지금은 약속한 듯 헛헛한

## 영채 노인

시간. 잣은 하품으로 연신 햇볕을 빼어 먹다가 뿐연 눈으로 포구 사람들을 쳐으며 시간을 증발시키고 있다. 다섯 번자리. 한동네에 나서 어슷비슷한 삶을 살았으니 끝도 열 추 맞춤이 소원이겠으나 지난겨울은 두 명을 앞세우고서야 물러났다. 어찌겠는가. 살아서는 풍파 맞받으며 같이 왔어도 갈 때는 뒷바람에 떠밀린 순으로 가는 것임을. 남은 이들은 빙자리를 보고 며칠 심란하였다가 무사히 봄을 맞은 자신이 무척 대견할 뿐이고 오늘도 안녕함을 자랑삼아 노인정에 모여드는 까닭이다.

“영채 형님 저기 오네.” 서너 걸음 뒤 반걸음씩, 박자를 놓치지 않고 서편 길로 반절하듯 등 굽은 노인이 오고 있다. 지팡이에 걸린 비닐봉지에는 어김없이 찬거리가 들어있겠다.

영채 노인은 92세다. 젊은 시절 아내와 웃 한 벌로 마을에 들어와 과수원살이부터 몸 굴리며 살았다. 읽은 것 없으니 몸으로 사는 도리 밖에 없는 터였다. 네 자식 낳고 살면서 생쥐 구멍만큼 벌었어도 바늘 귀 구멍만큼만 썼으니 20년 세월에 마당 거느린 집 세 채는 너끈했다. 살만하면 데려간다던가. 몇 년 병에 지쳤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노인은 두 해쯤 누운 송장처럼 살더니 지난해 봄에 비록 지팡이는 짚었지만, 포구에 걸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뿐인가. 석 달 전 구급차에 실려 갈 때만 해도 이제 끌이라는 게 마을의 중론이었으나 일주일 만에 걸음으로 포구에 들었으니 다들 보장된 백세인생이라 하였다. 노인의 말은 느리고 길어 중천의 해는 서편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내가 땀 조금 흘린 거 말고는 다 할멈 덕분이지. 이제는 쉬 했는데 혼자 가버리네. 누워도 할멈, 일어나도 할멈, 할멈이 속에 들어차 있으니 밥알 넘기기도 힘들고 그저 방에 관 들어오기만 기다렸지. 그런데 죽어지지 않는 거라. 하기야 난 것도 내 뜻이 아닌데 죽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되나? 죽지 못하니 살 욕심이 생기는데. 내가 살려고 할멈을 내보냈지. 마음이 허해. 그래서 자식 신세 안 지고 밥해 먹고 집안일 하고 푼돈 노인일자리도 나가며 대신 속을 채워놓는 거야. 이 나이에 할 게 뭐야? 다들 옛 생각 비우고 부지런히 움직여. 그러면 살아져.

내가 알건대 이 봄에 꽃 지고서

야 입 나는 건 벚나무와 목련, 그리고 영채 노인뿐이다. 바람이 산뜻한 바다 내음을 내려놓고는 마을 안길로 내쳐 달리고 있다.

## 열린마당

### 수돗물, 그저 마실 수 있다는 놀라운 일



강 창 훈

제주상하수도본부 상수도생산관리과

수돗물을 언제나 거기 있다. 언제든 수도꼭지를 틀면 흐르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한 잔을 받아 마신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 뒤에는 수많은 기술과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개 정수장에서 하루 34만t 이상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이미 100%를 달성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

하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무료 가정 수질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도정수처리 기술 도입, 노후시설 정비 등 수돗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주도는 2025년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돗물은 그냥 나오는 물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가뭄, 정수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 소중한 물길을 유지하려면 도민의 절약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맑은 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야 말로 놀라운 일이다. 제주상하수도 본부는 이 평범한 기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물길을 지키고 있다.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17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얼마나

도, ‘성평등임금공시’ 예정

○…제주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용역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도내 1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실시할 예정.

위원장인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순히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아닌 균형 환경, 직장 문화 등 노동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말 많은 축제에 총괄TF 가동

○…제주시가 최근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22일 지역축제 총괄관리 태스크 포스(TF)를 가동.

현원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와 축제 주최 부서에서 바가지요금 관리대책, 민원접수센터 운영, 위생·친절 교육, 축제장 음료 안전관리 대책 등을 수립·추진할 방침으로, 25일부터 열리는 ‘우도소리축제’와 5월 2일 열리는 ‘방문문화축제’의 세부 계획도 사전 점검.

시 관계자는 “첫 TF에서는 24개 축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비위생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앞으로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전반과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

## 사설

### 조기대선 정당별 후보 경선, 제주는 뒷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또다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내륙 중심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지역행보도 제한적이다.

지난 19~20일 총청권 및 영남권을 시작으로 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호남권과 27일 수도권·강원·제주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권역별 주요 도시에서만 치러지면서 나머지 지역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후보들의 지역방문 역시 당연히 없다. 제주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도 온라인 진행으로 대선분위기는 감지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5월 3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후보들의 제주방문 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별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구체적인 방문일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만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의 특수성 탓이다.

결국 본선진출을 위한 예선전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다. 최종 후보에 대한 검증만이 있게 된다. 후보들의 동선도 유권자 수나 경쟁률 등에 따라 정해지기에 중소도시는 배제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제주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선거운동 기간에 한 차례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지렛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와 중앙당을 개별 공략하는 게 그나마 대안일 수 있다. 국회위원, 당협위원장, 도의원 등 정치인의 역할이 더 막중해지고 있다.

### 고질적 택시 불편민원 조속히 근절해야

택시는 버스 다음으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보편화된 교통수단이지만 아직도 택시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택시는 버스 다음으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보편화된 교통수단이지만 아직도 택시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2023년 920건에 비해 60건 감소했지만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의 민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질서문란과 부

당요금 사례는 되레 늘었다. 택시 민원은 코로나19 당시 주춤했으나 엔데믹 이후 택시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 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 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div